

새집은 비싸고 내놔도 안팔려...내집 내가 고쳐 산다

광주 신축아파트 분양가 천정부지...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붐 5월 기준 실내건축 면허 10% 늘고 베란다 확장도 20% 증가

#.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사는 직장인 김주선(29)씨는 최근 평일 오전 중에 집을 이루기가 어렵다. 야간 근무를 하는 김씨는 가족들은 일어나 있는 아침 시간대 취침에 드는데, 일주일 전 옆집에서 집수리를 시작하는 바람에 소음과 진동으로 쉽게 잠에 들 수 없기 때문이다. 옆집에서 집수리를 시작한 지 1주일이나 지났지만, 김씨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건 1달이 넘었다. 김씨가 사는 동(棟)에서만 연이어 4곳이 집수리를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몇 주 전엔 이웃집 두 곳이 동시에 집수리를 한 적도 있다. 1997년 입주한 아파트로 연식이 오래 되다 보니, 기존 거주자들이 집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직장인 최종희(57)씨는 지난 주말, 아내와 함께 집수리 업체를 찾아 현재 사는 광주시 북구의 45

평형 아파트 집수리 공사를 맡겼다. 최씨는 거주한 지 20년이 넘어서면서 이사를 고려했지만, 비슷한 평형의 신축아파트 분양가가 10억원에 가깝다는 얘기에 집을 고쳐 살기로 결정했다. 최씨는 "평당 2000만원 분양가는 당장 현금도 부족할뿐더러, 정년을 앞두고 있어 대출은 부담이 됐다"며 "계다가 살고 있는 집이 팔린다는 보장도 없어 아내와 상의해 8000만원을 주고 집을 고쳐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축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부담과 거주 중인 아파트 매도가 어려워지면서, 이사 대신 집을 고쳐 살기로 결심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현금 수억 원이 필요하지만, 아직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 매수심리가 얼어붙어 집을 팔지 못하는 매일 한 집에 입주하지 못하는 이들도 생겨나는 상황에서, 집을 고쳐 사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서다.

20일 실내건축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집을 매입하면서 수리를 맡기는 고객의 비율과 기존 실거주자의 집수리 의뢰 비율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엔 집을 매입한 이들의 의뢰가 80%였는데, 최근엔 거주 중인 '집주인'들의 의뢰가 40%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10년차 실내건축 업체 종사자는 "코로나19 엔데믹 당시 재택근무와 집 안 생활이 늘어나면서 실내건축은 호황을 맞았었는데, 그때보다 일감은 줄었지만, 최근 신축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개인들도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아 신축 매입보다는 인테리어(집수리)를 결정하는 추세"고 말했다.

주택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광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은 평당(3.3㎡) 1805만원이

다. 이 분양가대로라면 34평형 아파트의 경우 약 6억2000만원에 달하는데, 최근 청약에 나섰던 단지들의 잇따라 분양에 실패한 것만 보더라도 실수요자를 설득하기에도 비싼 가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지역 인테리어 비용은 자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당 150~2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물가 상승 등으로 5년 전(100~150만원)보다 올랐지만, '미친' 아파트 가격보다는 합리적이라는 게 집수리를 결정한 이들의 이야기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것도 집수리 증가에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집을 팔아야 새집으로 옮겨갈 수 있지만, 아파트 매매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5월 1~5일까지, 광주에서 거래된 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712채로 작년 같은 기간 거래된 788채에 견줘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광주·전라권 아파트 입주율은 전국 최저인 56.3%를 기록했는데, 미입주 원인으로 '기준 주

택 매각 지연'이 절반 수준에 달했다.

실내건축과 관련한 통계들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광주지역에 등록된 실내건축 면허는 지난 5월 기준 455개로, 작년 연말(414개)보다도 10% 늘었고, 2년 전인 2022년(366개)보다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통계로도 확인되는데,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흔히 '베란다 확장'이라고 불리는 '비내력벽 철거' 허가 접수도 늘었다.

광주시 남구에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비내력벽 철거 허가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건축 관계자는 "과거엔 실내건축 면허 없이도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면허를 취득하는 이들이 늘었다"면서 "베란다 확장도 관할 구청에 허가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통신채무 연체 37만명 채무조정 가능...원금 최대 90% 감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앞으로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도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처럼 채무조정을 신청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을 거쳐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는 20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연체자 37만명은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http://cyber.ccrs.or.kr)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이 연체한 통신채무는 모두 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 조정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는 채무조정이 가능했지만, 통신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해, 통신사

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만 가능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일반 채무자 중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이용자는 일괄로 30%, 20개 알뜰폰사업자 6개 휴대전화 결제사는 상환 여력에 따라 0~70%를 감면해준다.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이들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결과,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농협 전남본부-남도장터 원예농산물 판매 협력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재단법인 남도장터와 전남에서 생산되는 원예 농산물, 아열대 과일의 판로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남농협 광역브랜드 '상큼아'와 '오매향' 상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판매 확대, 브랜드 홍보 마케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 원예농산물 브랜드인 멜론 블루베리 감자 '상큼아'는 멜론, 블루베리, 감자 등을 판매하고 아열대 과일브랜드 '오매향'은 바나나, 체리, 애플망고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남도장터는 입점업체 2000개, 회원수 83만명, 연매출 600억원 규모의 전국 대표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로,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농협은 남도장터에 상급에 17개 품목과 오매향 5개 품목을

판매하는 '특별 브랜드관'을 운영하게 된다.

특별 브랜드관은 오는 24일부터 감자, 멜론 등 10여개 품목 판매를 시작으로, 상품 출하시기에 맞춰 판매상품을 늘려갈 계획이다.

김경호 남도장터 대표이사는 "남도장터와 농협 전남본부는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함께 뛰어난 오랜 파트너"며 "이번 협약으로 '특별 브랜드관' 개설해 상급아와 오매향 브랜드가 더 많이 알려지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탁 본부장은 "이번 남도장터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남 농가의 판로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남농협은 앞으로도 전남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유통채널 다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삼성 AI 하이브리드 냉장고 두 개 동력으로 효율 극대화 연 2만8000원 전기요금 절감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하이브리드 냉각 방식의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가 전력 소모를 줄여 연간 2만8000원 상당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20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의 에너지 소비 효율이 국내 최고 등급인 1등급 최저 기준보다도 30% 뛰어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출시한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는 컴프레서가 단일 동력원이던 기존 냉각 방식에서 반도체 소자인 펠티어 소자를 결합해 두 가지 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펠티어 소자의 성능을 높여 컴프레서와 펠티어 소자를 함께 사용하는 가정용 하이브리드 냉장고는 국내 최초, 나아가 해외에도 보기 힘든 사례다.

위험 삼성전자가 생활가전(DA)사업부 선행개발팀장(부사장)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예시로 들어 "내연기관과 모터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효율을 높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하이브리드 냉장고는 컴프레서와 펠티어 소자를 동력으로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에 따라 동력원을 추가하는 점도 비슷하다.



3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웰컴 투 비스포크 AI'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모델들이 AI와 자체 플랫폼 '스마트싱스' 기반의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평소에는 AI 인버터 컴프레서가 단독 운전하다가 식재료를 대량으로 넣을 때처럼 큰 에너지가 필요하면 보조 동력으로 펠티어 소자가 가동하게 된다.

펠티어 소자는 서로 다른 두 반도체에 전류를 흘려보내 한쪽 면은 열을 흡수하고 반대편에서는 열을 방출하는 원리로 냉매 없이 전기만으로 냉각 기능을 한다.

AI 인버터 컴프레서에도 구조 변경 등 신기술을 적용해 효율을 높였다.

특히 이전 세대 컴프레서와 비교해 저속 운전 구간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최대 13% 이상 끌어올렸다.

스마트싱스의 'AI 절약 모드'를 사용하면 AI 알고리즘이 향후 온도를 예측하고 최대 냉각이 필요한 상황을 학습해 온도를 최적화한다.

성에 관리도 데이터를 활용해 필요할 때만 진행하는 등 맞춤형 에너지 절약 기능을 통해 실사용 에너지 소비량을 최대 25% 줄일 수 있다.

펠티어 소자를 배치하면서 기존에 여러 개 필요하던 열 교환기를 줄여 내부 부품도 간소화했다. 6cm 더 길어진 내부 선반과 25 l 늘어난 내부 용량으로 355ml 캔 24개를 더 채울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간을 넓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조달청 나주 찾아 현장 점검 "나라장터 등록 여행상품 활성화"

조달청은 20일 나주를 찾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지역여행 상품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다양한 고품질 국내여행 상품들을 개발하고, 지역여행 상품의 서비스 수준을 점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날 전남지역 여행 상품을 개발·계약 체결한 광주지방조달청 직원들과 함께 나주시 '마한역사문화탐방지역'을 방문, 직접 체험하고 지역여행 상품의 수요, 품질 등을 점검했다.

임 국장은 "다양한 수요가 있는 여행서비스의 특성에 맞추어 카탈로그계약 방식으로 국내여행 상품 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여행 서비스 산업 발전과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카드론 잔액 40조원...대출 '돌려막기'도 늘어

대환대출 잔액 증가세도 지속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이 지속하면서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40조원을 넘어섰다. '돌려막기' 성격의 대환대출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는 더이상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중·저소득층들이 상대적으로 대출이 간편한 카드론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0조5186억원으로 역대 최고였던 4월(39조9644억원) 대비 5542억원 증가했다.

카드론은 은행이 아닌 카드사에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담보 대출을 뜻한다.

카드론은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달리 은행 방문 등 복잡한 절차 및 별다른 심사 과정 없이 신용가

드 인증만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중·저소득층 등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할 시 찾는 '급전 창구'로 불린다. 더불어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론을 빌린 카드사에 다시 대출받는 대환대출 잔액도 늘고 있다.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5월 말 기준 1조9106억원으로 4월 말(1조8353억원) 대비 늘었다. 지난해 동월(1조3417억원)보다는 6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서민 경제 어려움이 큰 데다 저축은행 등 타 업권 대출 축소로 인해 당분간 카드론 잔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취약 차주가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환대출 잔액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 말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6753억원으로 4월(6조5605억원)보다 1000억원가량 늘었다. 결제성 리빙핀 이월잔액은 7조2817억원으로 4월(7조3176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정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국민연금 광주본부 전남 여성 생애설계 상담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윤종선)는 20일 순천에서 열린 '2024 전남 여성 생애설계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 여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생애 설계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전남 여성 생애설계 일자리 박람회는 전남도와 순천시 등 7개 시군이 함께 주최했으며, 지역 내 생애 일자리 준비 여성들의 취업 연계와 생애설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순천·목포지사 전문 상담사 6명은 별도 마련된 부스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대 1 컨설팅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컨설팅에 참여한 경력단절 여성들은 "결혼 후 육아 양육 등으로 단절된 경력을 다시 이어 일자리도 구하기 위해 참여했는데, 컨설팅을 통해 노후 대비를 장기적 및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에 대해 많이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윤종선 본부장은 "국민연금제도가 가정형 가입이 아닌, 부부 함께 가입하여 부족하지 않은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개인별 가계 자금 흐름을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부부 함께 연금을 받는 지역주민이 더욱 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807.63(+1 0.30)
↓ 코스닥	857.51(-3.66)
↑ 금리(국고채 3년)	3.196(+0.034)
↑ 환율(USD)	1384.70(+2.90)